

최근 FTA 등 주요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양돈산업 영향과 전망



정 찬 길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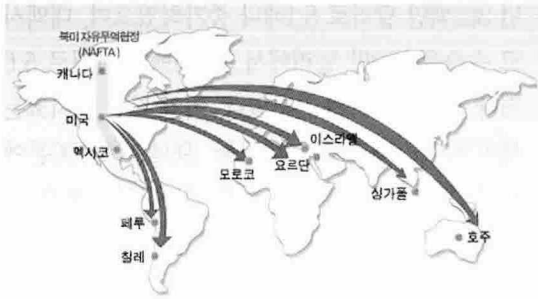
1. 최근 양돈산업의 국제통상 동향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UR, GATT, WTO, NAFTA, FTA 등이 국가간, 지역간, 상품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완전 제거를 목적으로 국가간 자발적 비자발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적 충격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국제통상장벽의 완화 혹은 소거는 경쟁력이 취약한 양돈국가들이 생산효율이 높은 양돈국가들로부터 수입압력을 크게 받게 하고 있어 생산효율이 낮은 일본, 러시아, 한국 등 국가들은 돼지고기 대량 수입국으로 전략하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양돈산업은 관세 장벽 혹은 보조, 시장차별, 위생과 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원하겠지만 국가간 자유무역협상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역장벽의 해소는 과거에 크게 규제되어 왔던 외국시장으로 돼지고기 생산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돼지고기 생산을 보다 전문화하여, 생산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반면에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수입국가들은 생산비가 증가하여 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을 감축하고 수입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우리나라와 FTA 협상국 미국, 캐나다, 중국, EU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협상중인 미국, 캐나다, 중국, EU는 돼지고기의 생산과 수출면에서 양돈선진국들이다. 2005년 기준



<그림 1-1> 미국의 FTA 체결 현황



<그림 1-2> EU의 FTA 체결 현황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50백만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53%이며 2007년 생산량은 5%증가한 55.8백만톤으로 전망되고, 돼지고기 수출비중은 총생산량의 10%나 된다. EU-25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21.2백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23%이며 돼지고기 수출비중은 총생산량의 28%나 된다. 미국은 9.4백만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10%이며 돼지고기 수출비중은 총생산량의 23%나 된다. 캐나다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1.9백만 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2%이며 돼지고기 수출비중은 총생산량의 22%나 된다.

머지않아 FTA 체결이 불가피하게 될 중국은 돼지고기 1위 생산국이며 5위 수출국이고, EU-25는 2위 생산국이며 1위 수출국, 미국은 3위 생산국이며 2위 수출국, 캐나다는 5위 생산국이며 3위 수출국이다. 2000년 대비 돼지고기 생산증가율은 중국이 23.2%, EU-25 2.3%, 미국 9.3%, 캐나다가 16.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돼지고기 자급율은 미국 105%, 캐나다 185%, 중국이 100.3%로 한국의 87.4%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처럼 돼지고기 대량 생산과 대량 수출이 세계 상위 5개국 내에 있으며, 낮은 생산비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중국, EU-25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비육돈판매가격과 생산비가 3~4위의 상위권에 있으며, 지육, 목살, 삼겹살 등 부위별 공장

도 가격도 최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돼지고기 대량수입국의 입지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FTA 체제로 진입하면서 모든 관세와 비관세 장벽, 위생(SPS; 위생 및 검역조치)까지 제로 포 제로(Zero for Zero)로 전환 등은 양돈산업을 국경 없는 세계화 시장으로 내 몰 것이다.

3. 미국, 캐나다, 중국, EU-25의 FTA 체결과 진행 상황

미국과 FTA 체결 국가는 싱가포르,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로코, 요르단,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도미니크공화국, 에살브르도, 혼드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칠레, 바레인, 호주, 오만이고 협상이 추진 중인 나라들은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SACU, 페루, 파나마, 말레이시아, FTAA(미주34개국),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한국 등이다.

캐나다와 FTA 체결국은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칠레,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이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MERCOSUR, EFTA, 한국이다. 중국과 FTA 체결국은 칠레, 아세안, 마카오, 홍콩이고 협상 진행국가는 GCC, 호주, 뉴질랜드(검토국 : 싱가포르, 인도 아이슬란

드) 등이다.

EU(27개국)와 FTA 체결국은 이집트, 알제리, 요르단, 시리아, 모로코, 레바논, 멕시코, 칠레 등이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Mercosur, GCC, 중국, ASEAN,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다.

돼지고기 대량생산과 수출의 세계 최대 상위 5위내에 있는 미국, 캐나다, EU-25, 중국의 FTA 체결과 협상대상국들을 아래 그림에서 보면 NAFTA를 제외하고 대량생산과 수출국들 간의 쌍방 간 FTA 체결을 찾아볼 수 없다.

4. NAFTA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돼지고기 교역변화

지금까지의 한·미 FTA 16차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협정문 작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저율할당관세제도(TRQ : Tariff Rate Quata), 긴급수입제한조치(SSG : Special)의 유지와 위생 및 검역조치(SPS : Sanitary and Pythosanitary) 규제를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관세와 비관세에 있어서 제로베이스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5차 협상에서 한국은 농산물민감성 반영,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탄력적인 방식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예외 없이 관세 철폐, 세이프가드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NAFTA 체결이후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양돈산업에 미친 영향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NAFTA가 2003년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충격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었는가.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1994년 NAFTA 발효 후 미국의 대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3년 37백만 달러에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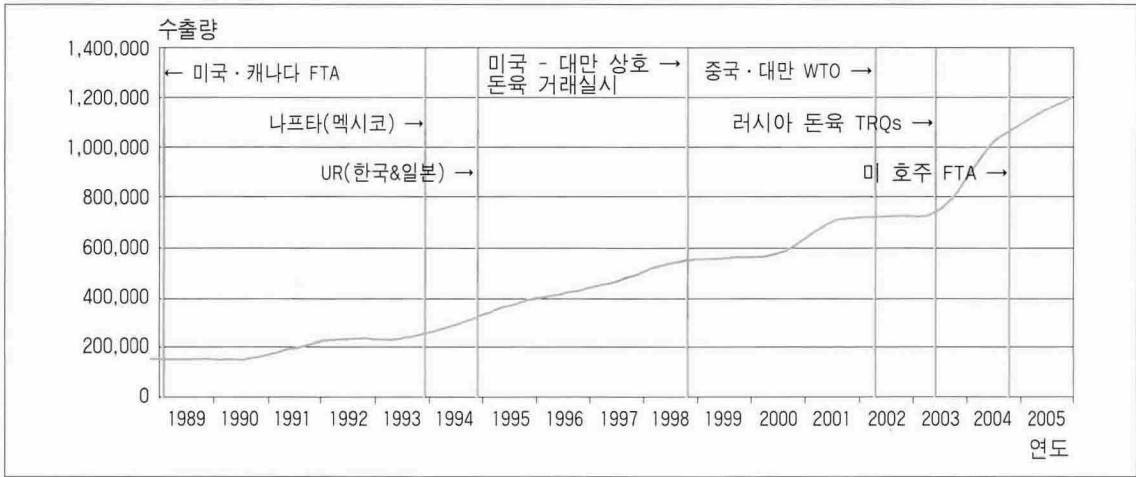
년 301백만 달러로 8.1배나 증가하였으며, 대멕시코 수출은 100만 달러에서 556.5백만 달러로 5.6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쿼터를 1994년 6,000톤에서 2002년 8,865톤으로 점증 책정하였으며 2003년 무한쿼터이고 쿼터내 관세는 15%에서 2%로 매년 감축하고 2003년에는 무관세로 전환되었다. 쿼터외 관세는 20%의 고관세를 책정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NAFTA 이행 10년 동안에 돼지고기의 수입가액이 1994년 100만 달러에서 2004년 556.5백만 달러로 폭증하였는데, 만일에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협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악영향을 받았겠는가?

반면에 미국은 UR로부터 GATT, WTO, NAFTA, FTA에 이르는 국제무역자유화과정에서 돼지고기의 대량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만끽하고 있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역자유협정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에 기하급수적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5. 한·미국, 한·캐나다, 한·EU, 한·중국 FTA의 영향과 전망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은 칠레와 싱가포르 등과는 이미 타결됐고, 미국과 중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멕시코, 인도, 일본, 캐나다 등은 협상 초기단계이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칠레는 FTA를 추진한 뒤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 돼지고기 수입현황은 FTA 체결전 2002년 6천460톤에서 체결 후 7만7천374톤(2005) 등의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관세감축이 가장 큰 유인 요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들 국가들과 FTA를 모두 채



<그림 2> 수입자유화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에 미친 영향

결할 경우 미국, 캐나다, 중국, EU 등에 의해 국내 양돈업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농산물 전체에 약 1조5천 267억 원의 생산자 수입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고, 경제적인 피해는 2~6조에 이른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돼지고기는 약 2만2천719톤의 생산량 감소와 2천455억 원의 생산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한·캐나다간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축산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2,000만 달러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 완전철폐 시 수입이 급증하여 단기 648억 원, 장기 1122억 원의 국내생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FTA가 체결되어 냉동돈육 관세 25%가 0%로 될 때 미국산 돼지고기 선호부위(삼겹살, 목살, 전지, 갈비)를 수입할 경우 국내산 지육가격은 2004년 기준 3,517원/kg에서 2,978원/kg으로 13.5% 하락하고, 생돈가격은 2,340원/kg에서 2,019원/kg으로 13.7%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산 지육가격은 2,928원/kg으로 16.8% 하락, 생돈

가격은 1,983원/kg으로 15.2%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 협상시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나, 체결이 불가피할 경우 관세 감소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돈업계는 생산비 절감 방안, 위생적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방안 마련과 수출, 업계의 구조조정에 의한 전략적인 경영전략 수립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중국 FTA 체결에 대응하여 이들 국가들이 돼지고기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세계 상위 5위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고 우리는 멕시코와 칠레보다 강한 TRQ, SSG, SPS 수위를 관철시켜야 함은 물론 FTA 체결 이후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과 소비 측면의 구조조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형 양돈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대책을 강화하고 돼지질병예방에 총력을 경주 우리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양돈**